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Matthew 11:28-30]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1부예배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본당 지하	11:00 am
화요소망학교	본당 지하	11:00 am
수요일예배	본당	7:00 pm
AWANA (수)	아가페홀	7:00 pm
새벽예배 (화-토)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아가페홀	12:30 pm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이덕홍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찬양인도	황규식 공석우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지휘자/서무	박은실
유초등부	청빙중	반주자	노윤실사모 김은화 이화니
영유치부	김성은 사모	번역/통역	김예람 이화니 송명신
시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방송	조준한 Daniel Sewell 조희수

열방을 섬기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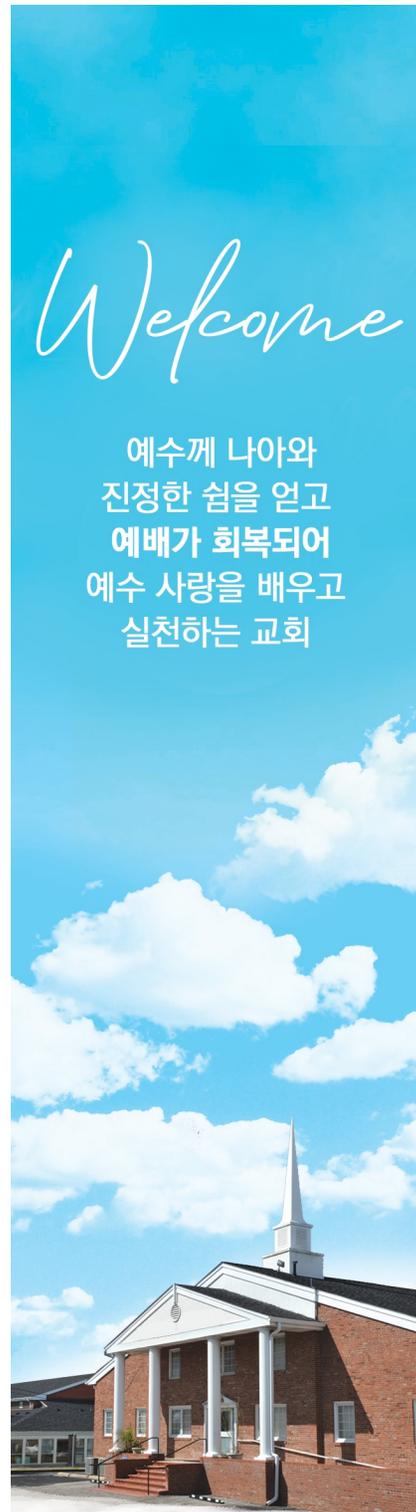
태 국	배중원	요 르 단	설총호/전경원
중 국	이주애	도미니카	이광호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Email HopeSTL@gmail.com
www.HopeSTL.org Agape Hall (314)786-5018



예수께 나아와
진정한 심을 얻고
예배가 회복되어
예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회

11.12.2023

고린도의 소명자들 (6)
충성된 일꾼

1부 9:00 AM 2부 10:45 AM

LIVE

주일예배

SUNDAY WORSHIP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Philippians 4장
참회의 기도	사도행전 Acts 2:38
찬송	찬 21장 다 찬양하여라 다같이
기도	윤순화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봉헌송	찬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다같이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4:1-14, NT p 267
말씀	고린도의 소명자들 (6): 충성된 일꾼 / 김성직 목사
Sermon	The Called in the Corinthians(6): Faithful Servants
*결단의 찬양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목회자컬럼 // 김성직 목사

ism>이 나와서 교인들을 오도하고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계명을 모두, 완전히, 우리를 위해 지켰으니 우리는 그런 도덕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자>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명백히 개혁주의 신앙도 아니며 극히 비성경적인 신앙이다. 요컨대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생활강령>임을 가르쳐 준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에도 15, 21, 23, 24절 등을 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의 제자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가?

5.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 (Soli Deo Gloria)

끝으로,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교리는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라는 사상이다. 우리의 생명 전체가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태어났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택함을 입어 사탄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변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은 조물주 하나님만 공경하고, 섬기며,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 소요리문답 제1문 참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탓에(창 2:7),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직업을 택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학교를 택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다.

이 말은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미도 들어있다. 천주교에는 예배의 종류가 셋이다. *doulia*, *hyperdoulia*, *latreia* 등 세 가지이다. 천사나 성자들에게 예배하는 것이 <*doulia*>이다. 이들은 천사도 경배하고 천주교를 믿다가 순교한 사람이나, 그 외에 공을 많이 세워 성자(saint)로 추인 받은 사람을 경배한다. 성경에서 <성도>는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분, 즉 중생한 분을 지칭하지만 천주교에 있어서 <성자>란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경배의 대상이 된다. <*hyperdoulia*>란 마리아를 경배하는 것이다. 이들은 마리아를 경배의 대상으로 알고 경배한다. 끝으로, <*latreia*>는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이다.

개혁주의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그에게만 순종하며 다른 이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엄금한다.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에는 <십자가>도 없었고, <예수님의 사진>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성상>도 없었다. 중앙에 강대상 하나만 놓고 한 시간씩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설교로 회중에게 큰 은혜를 더하였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의 설교와는 천양지 차이()가 있다.

(출처: 툴립선교회, 김명도목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사상 2.

계속해서 전에 살펴봤던 “개혁주의 신앙”을 다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들이 말씀 반석 위에서 “하나의 신앙”으로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건강한 한인소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글은 ‘틀립선교회’의 김명도 목사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사상>은 다섯 가지이다. 그 다섯 가지란, 1. 오직 성경(Sola Scriptura), 2.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 3. 오직 믿음(Sola Fide), 4. 오직 은혜(Sola Gratia), 5.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Soli Deo Gloria) 등인데,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자.

1.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2.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
3. 오직 믿음 (Sola Fide)
4. 오직 은혜 (Sola Gratia)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은혜>를 믿는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든 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고 믿는다. 천주교에서는 이른바 “여공(, supererogation)이라는 것이 있다.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고 믿지 않는다. 인간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사람마다 교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을 세워야 하는데, 구원 받기에 충분한 공보다 초과한 공을 “여공” 이라고 한다. 이 “여공”은 교회에 예치(deposit)되었다가 나중에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공급된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이 이른바 supererogation의 교리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종교 개혁가들은 <Sola Gratia>를 외쳤다. <오직 은혜>란 뜻이다. 구원은 100퍼센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노력은 조금도 가산되지 않는다.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든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든지, 어떤 공로를 이루어야 구원에 가산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모두 개혁주의 신앙이 아니다. 우리가 십계명, 즉 도덕법을 지킬 의무는 있으나 그 도덕법을 완전히 지킬 인간은 없다(갈 2:16, 롬 3:20). 도덕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능동적 순종(active obedience)으로 모두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지켜주셨다. 이것은 우리가 도덕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다. 그 도덕법을 지키다가 완전히 지키지 못하여 지옥에 내려갈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말이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소위 <도덕 폐기론, Antinomian-

성서교독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Philippians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같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린도의 소명자들(6): 충성된 일꾼 (고전 4:1-14)

< 본문 속으로 >

1. 우리 소명자는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한 자입니까? (1절)

2.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2절)

3. 소명자는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무엇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나요? (5절)

4. 소명자는 기록된 어디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까? (6절)

5.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쓴 목적은 무엇입니까? (14절)

SATURDAY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십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SUNDAY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배상진 장로님: 노환으로 힘든 중에 계십니다.

송명신 자매님: 계속 치료중이십니다

장길자 권사님: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MONDAY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 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TUESDAY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WEDNESDAY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여하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THURSDAY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흠어진 주님의 몸 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FRIDAY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생활 속으로>

1. 충성된 일꾼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나부터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내 신앙의 양심 지키면서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 늘 배우며 살아가는 소명자입니다. 내 안에 판단 본능은 어떠한지, 나는 과연 남의 판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지, 신앙인의 양심은 어떠한지, 진정 성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2. 충성된 일꾼은, 구경하는 방관자 아니라,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동역함으로 오늘 영적 전투에 임하는 소명자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정녕 세상이라는 벼랑 끝에서,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투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실제 함께 치러나가는 동역자 맞는지, 점검해 보세요.

3. 충성된 일꾼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름종이를 통해 신앙의 정화작용을 진행해 나가면서, 언제나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귀히 대하는 소명자입니다. 내 속에 신앙의 정화작용은 어떠한지, 나는 행여 누군가를 폭력의 쓰레기통으로,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취급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예배를 섬기는 이들

11/12		11/19	
대표 기도	윤순화 장로	대표 기도	백형수 장로
교회 안내	김봉구, 문춘자 집사	교회 안내	김선아 집사
번역/통역	이화니 자매, 송명신 자매	번역/통역	김예람 자매, 송명신 자매
애찬 담당	칠레 구역	애찬 담당	1조 구역
교회 청소	케냐 구역 (11월)	교회 청소	케냐 구역 (11월)

향기로운 예물 11/5/2023

주일	\$790	건축	\$120	주일학교/유스	\$0
십일조	\$8,893.01	첫열매	\$100	방송문서부	\$100
감사	\$950			청년부 보조금	\$100
선교	\$220				
구역선교	\$0			현금총액	\$11,273.01

현금 외 수입금

0

입금총액 \$11,273.01

교회현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opeSTL.org/online-donation

1.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11월19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온가족이 함께 하는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없고, 2부 때 다함께 본당에서 감사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안수집사/권사 피택자교육

다음 주일(11월19일) 식사교제 후 1시에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3. 추수감사절 당일

추수감사절 당일(11월23일 목요일 5PM) 외로우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담임목사님 가정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니까 그냥 오셔서 함께 식사교제 나누시면 됩니다. 미리 담임목사님이나 사모님께 말씀해 주세요. 단, 단순히 도와주러 오시지는 마세요. 가족과 함께 하는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새로 등록된 교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구역 칠레 구역 (백형수 장로, 임춘남 권사)과 황신재 선교님 위해서

기도가정 황규식 (이선영) 집사님 가정 위해서 - 석준, 현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순간마다 감격하고, 그것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날마다 목마름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행사

11월 19일 (주)
추수감사주일
-연합예배

11월 23일 (목)
추수감사절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는 디너
@5PM

12월 3일 (주)
임직식
(2부 예배 중)
정기당회

12월 10일 (주)
예결산 위원회

12월 17일 (주)
제직회 총회

12월 24일 (주)
성탄예배
공동의회

12월 31일 (주)
송년예배
송구영신예배
(11PM, 성찬식)